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
볼드체(굵은 글씨)는 원본을 의미합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
*Therefore
Every Angel Is in a
Complete Human Form*

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
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
량이라 (계21:17)

지난주, 스페덴보리 저, ‘천국과 지
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9장,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 모습이다’(Each Society in H
eaven Reflects a Single Man)에
이어 오늘은 10장, ‘모든 천사는 온
전한 사람 모습이다’(Therefore Ev
ery Angel Is in a Complete Hum
an Form)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arcana, 秘
義), 곧 주님이 그동안 감추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환히 보이시는 계시
인 이 아케이나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하도록, 우리 영과 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3 앞 두 장에서 본 사실들은
천국은 그 전체로도 그렇
고 천국 내 각 공동체로도 그렇고
모두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
이라는 것이며, 이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세부내용들로 말미암아 이
것이 각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천국은
가장 큰 형태의 사람이요, 천국 내
한 공동체는 가장 큰 형태보다 좀
작은 형태의 사람인 것처럼, 각 천
사 역시 이번에는 가장 작은 형태
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형태처럼
가장 완벽한 형태에서는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 간에 일종의 유
사성, 닮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천국이 일종의 공동 쉐어링(c
ommon sharing, 나눔)이기 때문인
데요, 천국은 그 가진 모든 것을
모두와 쉐어링하며, 모두는 그 가
진 모든 것을 쉐어링을 통해 받기
때문입니다. 각 천사는 그래서 하
나의 수용체, 즉 그릇이며, 그는
위 해당 장에서 본 것처럼,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그가 천국을 받
아들이는 만큼 그도 그릇이요, 천
국이고, 천사이기 때문입니다.(위 5

계21:17, HH.73-77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

7번 글 참조) 이런 사실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계21:17)

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 (城, *Jerusalem*)은 주님의 교회, 더 높은 의미로는 천국을, ‘성곽’(wall)은 진리, 거짓과 악의 공격에 맞서 방어하는 진리를, ‘백사십사’(a hundred and forty-four)는 모든 선과 진리 전체를, ‘측량’(measure)은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선과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천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위 말씀의 영적 의미입니다.

※ 본래 ‘사람’이라는 표현은 오직 주님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태곳적, 처음 주님이 ‘사람’ 형태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자신들을 가리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적(天的, *celestial*) 인간인 그들 안에 주님의 신성(神性, *The*

Devine)이 오롯이 깃들어 있음을 보시고 그들 역시 ‘사람’이라 하신 것입니다. ‘천사’라는 영적 존재들은 그들이 ‘천사’, 즉 천국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는 사람이었으며,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도 주님의 신성이 오롯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그들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도 주님의 신성이 천사들처럼 오롯이 자리하고 있는 한 천사입니다.

※ 아래 부연 설명들 중 괄호 안에 AC(*Arcana Coelestia*) 글 번호가 있는 글들은 원본 각주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AC.402, 3654, 9166)

‘성곽’은 거짓과 악의 공격에 맞서 방어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AC.6419)

‘열둘’(12)은 모든 선과 진리 전체를 의미합니다. (AC.577, 2089, 2129, 2130, 3272, 3858, 3913) ‘칠십이’와 ‘백사십사’ 역시 같습니다. 열둘의 배수들이기 때문입니다. (AC.7973) 말씀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그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AC.482, 487, 647, 648, 755, 813, 1963, 1988, 2075, 2252, 3252, 4264, 4495, 5265) 배수들은 곱하기 전 그 본래의 수가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

상징하던 것과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AC.5291, 5335, 5708, 7973)

말씀에서 ‘측량’은 진리와 선 측면에서 본 어떤 것의 퀄리티(quality, 質)를 의미합니다. (AC.3104, 9603)

이런 의미를 모르고서는 ‘성곽’의 의미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말씀의 영적 의미, 곧 속뜻(*internal sense, inner meaning*)에 관하여는 계시록 백마에 관한 설명이나 새 예루살렘과 그 천적 교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 성경 66권 중에서 속뜻이 있는 성경을 ‘말씀’(The Word, 총 34권)이라 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속뜻은 오직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만 있습니다.

구약 : 창, 출, 레, 민, 신, 수, 삿, 삼상, 삼하, 왕상, 왕하, 시, 사, 렘, 애, 겔, 단, 호, 율, 암, 읍, 율, 미, 나, 합, 습, 학, 속, 말 (29권)

신약 : 마, 막, 눅, 요, 계 (5권) (A.C.10325)

참고로, 서신서들을 비롯, 성경에 포

함된 나머지 글들(총 32권, 구약 10권, 신약 22권)은 신앙생활에 유익하여 성경에 포함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들은 그저 참고만 할뿐, 이 글들을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하거나 여기서 무슨 신앙의 교리들을 뽑아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글들에는 아케이나가 깃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74 이제 경험 이야기를 하지요. 천사들이 사람 모습, 곧 사람들임을 저는 수천 번 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사람대 사람으로, 어떤 땐 혼자, 어떤 땐 여럿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람과 다른 점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가끔 그들이 사람과 너무 똑같아 놀라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무슨 환상이나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봐 저는 완전히 깨어 있는 중에 제 온몸의 감각이 다 정상인 상태,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에게 기독교계 사람들은 천사와 영에 관하여 믿기를, 그들은 형태가 없는 정신적인 존재들, 심지어는 순수한 생각들이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라고 믿는다는 것, 그 안에 무슨 기운이 좀 있는 아주 가벼운 것들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그들은 천사들은 생각하는 거 말고는 아무 인간적인 게 없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으며, 말할 수 있는 입이나 혀도 없다고 믿고 있는, 거의 장님 수준의 무지 가운데 그들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이 말에 천사들은 자기들도 세상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음을, 특히 배운 사람들, 심지어 성직자들 중에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말하기를, 지식인들, 이들은 리더들이며, 천사와 영에 관한 이런 관념들을 처음 만든 자들인데, 이들이 걸 사람의 감각만 가지고 그런 관념들을 만든 거라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나 누구에게나 심긴 보편적인 결로는 생각하지 않고 대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남이 만든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터리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걸 사람의 감각만 가지고 만든 관념들은 오직 자연계에 속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것은 전혀, 그래서 영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천사들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그들의 리더십들로부터 온 이런 거짓된 생각들을 채택, 안내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을 정하며, 그걸 믿고, 그리고는 그게 이치에 맞다 여기게 되어 나중엔 그 입장에서 쉽게 몰려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에 안주하게 됩니다.

※ 사람은 걸 사람의 감각 관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주 보잘 것 없는 지혜로 머물게 됩니다. (AC.5089)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감각 관념들을 넘어선 생각을 합니다. (AC.5089, 5094) 사람이 이런 걸 극복하면 그는 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며, 마침내 천국의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AC.6183, 6313, 6315, 9407, 9730, 9922) 이런 걸 극복하고 위로 올라감이 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AC.6313)

[3] 천사들 말이, 오히려 신앙과 하트(*heart*, 심장, 마음)가 단순한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그런 관념은 없고, 대신 단순히 하늘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늘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심긴 걸 세상 학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

문으로 지워버리지 않았으므로 형태 없는 그 무엇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천사들이 조각상이든 그림이든 왜 항상 사람 모양인가 하는 이유입니다. 천국으로 말미암은 이런 인사이트(*insight*, 통찰)에 관하여 천사들의 말은, 그것이 신앙과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 실천,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은 실천된 진리이며, 진리는 아직 실천되지 못한 선입니다. 주님은 선 안으로는 직접 들어오시지만, 진리 안으로는 선을 거쳐 간접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이요, 주님의 질서는 안에서 밖으로, 속에서 겉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신성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의 사람, 실행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기쁨입니다. 무슨 귀한 걸 소유한다거나 무슨 높은 자리에 앉는다거나 또는 날마다 무슨 잔치를 벌인다거나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75 현재 수년간의 제 모든 경험상,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천사들은 외관상 완전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얼굴, 눈, 귀, 몸, 손과 발을 가졌으며, 들을 줄도, 볼 줄도 알고, 서로 대화도 나누는 등, 사람과 달리 육체적 몸만 입지 않았을 뿐 한 마디로 외관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들을 그들 고유의 빛으로 보아왔습니다. 그 빛은 지상 정오의 빛보다 몇 배나 더 밝은 빛이어서 그 빛으로 보면 그들의 모든 특징이 지상에서 보는 사람 얼굴을 볼 때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허락을 받아 가장 내적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낮은 천국 천사들보다 훨씬 더 밝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를 깊이 살폈는데 그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76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은 절대 육안으로는 천사를 볼 수 없고, 오직 그의 안에 있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21:17, HH.73-77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

※ 사람은 그 내면으로는 영입니다. (AC.1594) 그리고 영은 그 사람 자신이고, 몸은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AC.447, 4622, 6054)

그 이유는, 그의 영은 영계에, 그 몸에 속한 모든 것은 자연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육, 영은 영, 서로 같은 쪽의 것만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무슨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면 귀신이 나오고, 등장인물들이 귀신을 보고, 또 귀신이 산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두 세계 사이 무질서한 오고감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발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깨어나서, ‘어? 저건 뭐지? 나는 저런 걸 볼 시도조차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장면이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 거야? 지금까지 내 건 줄 알고 즐기던 이 모든 악한 기억들이 내 것이 아니었던 거야? 오... 그렇단 말이지? 음, 그렇다면... ^^’ 하고는 자기가 와있는 사람의 영을 작정하고 파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악한 영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을 파괴하여 그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대 이런 콘텐츠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주의하여 그만 자기 안에 와있는 악령들을 깨운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이 급 발전 중인 이 세상이 점점 초고속으로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만일, 주님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그만 부주의하여 이런 콘텐츠를 가까이하였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이후 단단한 결심과 더불어 이런 콘텐츠에 대한 끌림에 저항하고, 손을 떼고 제대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 편에 서며, 주님이 대신 내 안의 악과 싸워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약속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악을 직접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게다가 눈 같은 시각 관련 신체

기관은 너무 조야(粗野)해서 다들 아시는 대로, 확대경 없이는 자연의 아주 작은 것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계를 초월하는 것, 곧 영계에 속한 모든 걸 본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람은 육안 대신 그의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일은 주님이 원하셔서 사람이 이런 거 보는 걸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은 자기 육안으로 보는 줄로만 압니다. 아브라함, 롯, 마노아 및 선지자들이 그렇게 천사를 보았고요, 주님 역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천사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보았기에 그들을 일컬어 ‘보는 자’(seers)라 하였고, ‘선견자’(삼상9:9; 민24:3)라고도 하였으며,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 엘리사의 종의 경우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그들의 눈을 여신다’고 하였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삼상9:9)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엘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24:3)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왕하6:17)

77 저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선한 영들은 천국과 영 및 천사의 실상에 관한 교회 안 이런 무지로 인해 깊은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주 마음이 상해 제게 당부하기를 자기들은 무슨 형태 없는 것도, 공기 중 무슨 에테르 같은 것도 아닌, 바로 사람 형상 그대로이며, 그들이 세상 살 때와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존재들임을 제발 좀 분명히 선포해달라 부탁드립니다.

※ 각 천사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질서를 담은 그릇이므로, 그는 자기에게 담긴 질서에 비례하여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람 형태입니다. (AC.322, 1880, 1881, 3633, 3804, 4622, 4735, 4797, 4985, 5199, 5530, 6054, 9879, 10177, 10594) 질서가 존

계21:17, HH.73-77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

재하는 것은 신적 진리에 의해서이며, 신적 선이 그 질서의 본질입니다. (AC.2451, 3166, 4390, 4409, 5232, 7256, 10122, 10555)

※ 각 천사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질서를 담은 그릇이므로, 그는 자기에게 담긴 질서에 비례하여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람 형태입니다. 질서가 존재하는 것은 신적 진리에 의해서이며, 신적 선이 그 질서의 본질입니다.

※ 아래는 ‘질서’에 대한 기술입니다.

1495 [2]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질서(*order*)라는 것에 관해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질서란, 천적인 것이 영적인 것 안으로 흘러들어 그것을 그 자체에 맞추는 것이며, 그렇게 이번에는 영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 안으로, 이성적인 것은 기억-지식 안으로 흘러들어 각각 그 자체에 맞추는 것입니다.

※ ‘그것을 그 자체에 맞추다’는, 영적인 것의 순기능인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

로, 차례대로 영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 안으로, 이성적인 것이 기억-지식 안으로 흘러들어갈 때 저마다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 올바른 쓰임새들이 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질서’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지상의 삶을 보다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한 일종의 무슨 비결, 비법서가 아니라, 천국을 가리키는, 천국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야가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아케이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는 저의 초대가 아니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부디 이 초대에 응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천국 천사들처럼 그 본뜻인 천국 뜻으로, 그 속뜻으로 읽어 지상에서도 천사들처럼 주님과 결합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10-09(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